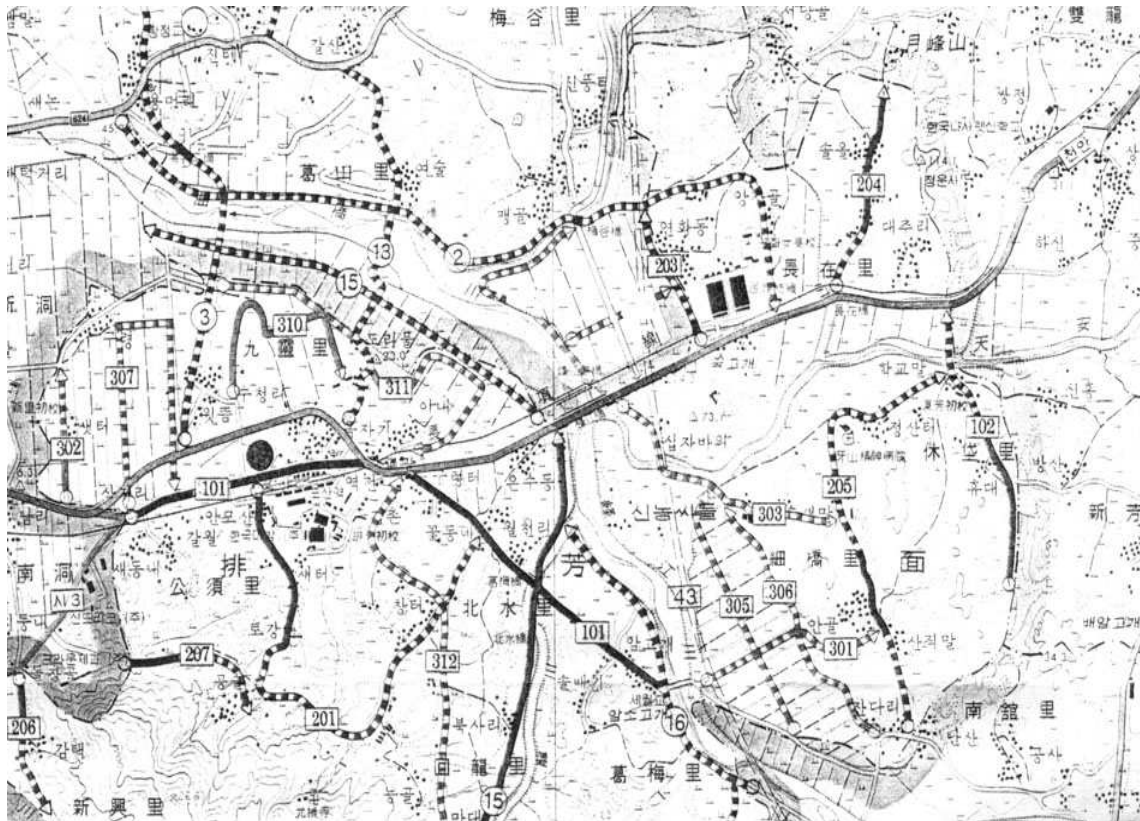


세교리·細橋里

본래 온양군 동화면 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리 송성리 운성리 사오 개리를 병합하여 세교의 이름을 따서 세교리라 하여 아산군 배방면에 편입되었다. 잔다리, 운성리, 안골, 쭉고개, 속셈말등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있는 마을이다. 세교리의 총 인구는 1,266명이며 가구 수는 총 453가구이다. 이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134가구이다.

<세교리 위치도>



⊗ 잔다리, 안골, 쭉고개, 속셈말 마을

잔다리(세교1리)마을은 신농씨들 동쪽에 있는 마을. 소소한 다리가 많아서 지어진 이름, 뒷 산이 성과 같이 둘러 있음.

안골(세교2리)마을은 성재 안쪽에 있는 마을로서 안골이라 칭하기도 함. 전에는 동화면사무 소가 있었다.

쭉고개(세교3리)마을은 1980년대말 세교2리에서 분구 되었다. 약쭉이 많이 난다하여 쭉고개 라 불리움.

속셈말(세교4리)은 성재 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 샘이 하나 있는데 마을 주민이 전부 그물을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90년대 초에 세교 2리에서 분구되었다.

<조사당시 세교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잔다리(운성리)마을은 안골에서 3km 정도 포장된 길을 따라 가다보면 조그만 마을이 보인다. 이길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는 세교리 1구이고, 바깥쪽으로는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에 속한다.

안골(세교2리)마을은 아산 병원에서 1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계속 가다보면 안골이 나온다. 세교 3리인 쑥고개 마을은 천안으로 통하는 2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가 많다. 세교4리인 속샘말은 쑥고개 뒷편 마을이다.

2) 현황

인구분포현황을 보면 쑥고개인 세교3리는 교통이 편리하여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가장많은 747명이다. 상업에서도 볼수있듯이 잔다리, 안골, 속샘말은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쑥고개는 10%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잔다리	111명	58명	53명
안골	312명	169명	143명
쑥고개	747명	377명	370명
속샘말	96명	51명	45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잔다리	100%	70%	30%

안골	100%	67%	33%
쑤고개	100%	10%	90%
속샘말	100%	77%	23%

농경지 현황에서는 안골마을이 78ha로 농경지 면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잔다리	42ha	22ha	20ha
안골	78ha	52ha	26ha
쑤고개	13ha	5ha	8ha
속샘말	29ha	15ha	14ha

- 농기계 보유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잔다리	67	7	6	17	15	12
안골	14	5	2	3	7	6
쑤고개						
속샘말	6			6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사물놀이 악기	방송시설
잔다리	1	1		
안골	1	1		
쑤고개	1	1		1
속샘말	1	1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
잔다리	6	5	26	9	10	19	16	2	4
안골	28	46	55	35	44	30	35	20	9
쑤고개	105	89	235	151	108	61	33	11	5
속샘말	4	11	13	6	13	11	13	2	3

- 성씨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기타
잔다리	13%	16%	7%	64%
안골	7%	24%	4%	65%
쭉고개	16%	13%	9%	62%
속샘말	21%	17%	6%	56%

- 학생 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잔다리	4	1		
안골	26	13	13	1
쭉고개	54	20	28	2
속샘말	5	1	3	

- 최고령자

1리 이창근씨 92세, 2리 민금연씨 91세, 3리 송복녀씨 87세, 4리 이한녀씨 87세

- 호당 평균소득

1리 1,600만원, 2리 1,700만원, 3리 1,700만원, 4리 1,800만원

3) 자연경관

잔다리(세교1리)마을에는 오래된 고목이 많으며 잔다리, 안골마을은 작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있다. 속샘말(세교4리)마을의 특징은 마을 밖에서는 이 마을을 찾아 볼수 없다는 것이다. 마을 모양이 鑿자 형으로 되어 있는데 산과 산 사이에 마을이 있어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을 많이 왔다고 한다. 쭉고개는 21번 국도 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아파트단지의 한 부락이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온양군 동화면 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리 송성리 운성리 사오 개리를 병합하여 세교의 이름을 따서 세교리라 하여 아산군 배방면에 편입되어 1리, 2리로 구분되다가 1980년도에 세교리 에서 3리로 분구되고 다시 90년대에 세교 2리에서 세교 4리 가 분구 되었다.

5) 입향

잔다리(운성리)마을은 300년전에 는 천안 전씨가 터를 잡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 자손이 살고 있다. 마을에 인구가 제일 많았던 시절은 40가구로 6.25직후라고 한다.

안골(세교2리)마을은 처음으로 홍씨가 터를 잡고 살았으며 현재 12대째 살고 있으니 360년 정도 되었고 그후로 이씨와 원씨가 들어와 10대째 살고 있으며 원씨는 홍씨의 묘를 관리했다고 한다.

쭉고개(세교3리)마을은 생긴지는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국제 방식이 생기자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으며 하숙집과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곳에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이씨이다.

속샘말(세교4리)은 이곳에 터를 잡고 산 사람은 한씨이며 임진왜란 때 왜적을 피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6) 지명

사오개 : 잔다리 남쪽에 있는 마을 갈매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음.

산직말 : 운성 위쪽에 있는 마을

속셈말 : 성재 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 샘이 하나 있는데 마을 주민이 전부 그 샘을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안 골 : 성재 안쪽에 있는 마을 전에 동화 면사무소가 있었음.

잔다리 : 신농씨들 동쪽에 있는 마을 소소한 다리가 많아서 지어진 이름.
 뒷산이 성과 같이 둘러 있음.

성 재 : 안골 뒤에 있는 산으로 현재 산제당이 있음.

유상성재 : 안골 앞 동쪽에 있는 산 높이100m 옛 성 자리가 있고 그 밑에 류씨의 무덤이 있었음.

셋 들 : 안골과 휴대리 의 등산처 사이에 있는 들
 신농씨들 :세교리 서쪽에 있는 큰 들
 가재골 : 성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

구 터 : 속셈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대성산성 서쪽이 되는데 기와 조각이 나오고 있음.
 부엉박골 : 유산성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 부엉바위가 있음.
 오방골 : 유산성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탐 골 : 신농씨들과 안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쭉고개 : 양강골 남쪽에 있는 다리 약쭉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건재고개 : 산직말 뒤에 있는 고개.
 수대고개 : 안골에서 휴대로 가는고개
 탐골고개 : 안골에서 탐골로 넘어가는 고개

부엉바위 : 부엉박골에 있는 바위 큰 집채만한데 1965년에 떨어져 나감.

세교산성 : 속셈말 남쪽에 솟아 있는 포고 100m 정상에 축조되어 있다. 성의둘레는 495m 이다.

대성산성 : 성재산에 있는 토성으로 300칸 정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봉강교 : 북수리의 "봉강교"

잔다리 운성 앞 들에 있는 다리. 붓도랑에 잔 다리를 여러군데 놓았음.

홍판조 신도비 : 배방면 세교리 안골 마을 도로변에 위치한 이 비는 화강암 석재로 이루어진 장방형의 대좌 위에 비신을 세우고 옥개형의 이수를 올렸다.

홍중징 신도비 : 배방면 세교리 안골 마을에 있는 공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

이밖에도 십자 바위와 작약 바위가 있다. 십자 바위는 말 그대로 바위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작약 바위는 평풍바위 라고도 불리는데 바위모양이 여자의 생식기처럼 생겼다고 지어진 이름이다.

운성리 : 옛날 잔다리 산 주위에서 견우와 직녀가 구름을 타고 만났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7) 전설

세교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국가지정 보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사계첩(耆社契帖)

기사는 원래 70세 이상된 정삼품 이상의 중신들을 우대하는 뜻에서 만든 모임인데 조선 태조 3년(1394)에 시작되었다. 이 기사계첩은 숙종 45년(1719년)에 있었던 계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계회에 참석하였던耆老들의 발의로 그해 4월17일과 18일에 있었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眞影의 제작이 오래 걸려 1720년에 완성한 것이다.

이 계첩은 모두 12부를 제작했는데 1부는耆所에 보관하고 11부는 기신들이 1부씩 나누었다고 되어있다. 각면의 글씨나 그림의 바탕은 생명주를 썼으나 御製만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행사의 장면을 그린 다섯장의 그림과 진영은 채색을 사용하였으며 비단으로 표구하여 첩을

만들고 기신들이 지은 축시는 자필로 써서 각자의 서체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그외의 글씨는 楷字로 書寫官이 썼다. 18세기초의 초상화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어 역사적 사료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잔다리(운성리)마을에 있는 건재고개는 산직말 뒤에 있는 고개인데 산직말은 운성 뒤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이곳에서 제를 올릴 때는 마을에 외지인들이 들어 올수 없으며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한다.

안골(세교2리)마을은 매년 정월 초 마을에서는 산제를 지내는데 산제당을 가보면 호랑이 그림이 있다 산제를 지내기 전날부터 마을에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으며 마을 입구에 줄을 띄어 놓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황토 흙 세 무더기를 좌우로 놓는다.

쑥고개(세교3리)마을에서는 산신제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음력 1월 보름에 윗놀이와 여러 가지 놀이로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한다고 한다.

속셈말(세교4리)은에서는 윗놀이와 그네 타기를 정월 보름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단지 마을 주민들의 친목을 위해 계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년 부녀회 주관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온다고 한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독립운동가 - 홍필주

자는 사정, 호는 자은 본관은 풍산, 관동영부사 만조의 6대손, 철종 정사년 9월 9일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안골)에서 출생하였다. 유시로부터 총명이 과입하고 재기가 출중하며 박학 다문 하고 식견이 고매하니 사우간에 왕좌의 재라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당시 내외환이 격증하며 지방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고종병신년 미금부도사 종인 유주와 함경도 관찰사 이남규가 고종께 상소하여 안동 관찰 부 참사관으로 발탁되었다. 동년 현풍 군수로 전임하여 관패를 일소하고 애민선정을 하니 군민 환호가 대단하였다. 그후 안동부사 겸 안동 군수로 전임하매 현풍 군민들이 그 공적을 찬양하여 만인산(우리나라 3기 밖에 없음)을 증정하고 치하하였다. 고종 신축년에 대구관찰사겸 대구군수로 전임하였으나 그 당시 청일전쟁이 종료되면서 일본 등이 조정을 간섭하매 전국이 소요 스러웠다. 그는 생각한바 있어 관직을 사직하였다. 고종께서 재임시 공적을 찬양하여 중추 원참의관, 정3품 토정대부로 추증하였다. 은거 하던중 국가가 혼란하며 세중이 난잡하여지매 경순년 6월에 일본국 동경에 가서 당시 일본국 총리대신 그리고 이등방문, 두산만 등 일본 정계순뇌 들과 회담하여 우리나라는 자주 국가요 엄연한 독립국가 임으로 야국 정사에 간섭함이 천만부당하다고 항의 토론하였다. 그 때 중국의 이홍장이 파송한 유명한 정윤가 양계초가 동경에 왔다가 한인 홍공이 체유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상근 장여사로 내방하여 3일간이나 동숙하면서 동양 대세를 논의 하였다. 그후 그의 일기에 홍공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고금을 통관하는 우국지사라고 하였다. 당시 양계초는 이홍장에게 보고하여 이홍장의 친필인 문장이라는 대폭족자를 공에게 증정하였다. 그는 귀국하여 당시 나라를 바로잡자면 무엇보다도 민중을 계몽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신학문을 접수함이 시급하다는 것을 통감하여 당시 우국지사 윤지호, 권동진, 남궁준, 여병현, 류근, 이우영, 장지연, 정운복, 김가진, 윤희정, 남성철, 민형식, 지식영, 오세창, 유진태, 목상필, 등과 같이 대한협회를 조직하는 한편 협회보를 발간하여 국민들을 계몽선도 하였으며 또한 기호 홍학회 (현 중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학부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로 안창호, 홍진, 신규식, 조완구등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그는 장지연, 김좌익, 정만조, 윤서구 등과 같이 대동시선을 편찬하였다. 저서로는 자고소장, 당사약논, 문집 등이 있다. 그는 항상 민중계몽과 청소년 교육에 몰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3.1운동 2년전인 정사년 12월12일 서울에서 졸하였다. 묘소는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옥녀봉에 있다.

10) 종교단체

내곡 성결교회 배방면 세교2리 216번지 목사 이완주 종파 : 성결교

배방 감리교회 배방면 세교 3리 424-6번지 목사 임기석 종파 : 감리교

11) 공장현황

* 삼신 유지공업(주) : 배방면 세교리 917-5 생산품 : 유지가공사료

* 성풍 양행(주) : 세교리 599-4 생산품 : 식품 첨가물

- * 벽제 화확 : 세교리 599-4 생산품 : 스티로폼
- * 천지 건업 : 세교리 629-1 생산품 : 철근 받침대
 - * 한창산업 : 산 93 생산품 : 전자부품
- * (주)한국이엔이 : 세교리 420-22 생산품 : 주유기, 세차기

12) 마을의 특성

세교 1리, 2리, 4리, 같은 경우는 다른 타 마을과 마찬가지로 인구분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반하여 세교 3리는 국제방직 및 대형 마트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천안 근교로 교통이 편리하다.